

KANG. JEE WOONG



회화 작가

강지웅

예술인명		강 지 용	
주 교 이	여 야 력	2016.02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박사 수료
		2012.02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석사
		2009.02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학사
개 인 전		2021.05	<Jesus Bleibet Meine Freude(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 예향갤러리, 인천
		2015.06	<Salvation Desire>, 아트스페이스 너트, 서울
		2013.03	<MESSIAMNESIA (messiah + amnesia) 메시아기억상실증>, 장천갤러리, 서울
		2010.11	<FOR THE SMARFOOL(SMART&FOOL) >,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서울
단 체 전		2015.12	<Only 전>, 스페로 갤러리, 인천
		2015.10	<빵의 예술, 영혼의 예술-'십자가'>, 피아룩스갤러리, 서울
		2014.12	<"The Artists">, SIA Gallery, New York, USA
		2013.12	<탄생과부활 展>,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2.08	<80-90 감성이미지 전>, 성곡미술관 본관, 서울
소 장		2010.07	<FOR THE SMARFOOL(SMART&FOOL) >, K옥션, 서울
		2010.03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신일교회, 서울
상 훈		2013.07	제21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우수상
		2011.12	제 48회 목우회 미술공모대상전 이사장상

# 프로젝트명 : <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 2021

##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헨리 나웬(Henri Nouwen)에 의하면 현대는 '부친 없는 시대'요, 홀로 욕망하다 혼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다. 프랑스의 저술가 크리스틴 조디스(Christine Jordis.1942~ )에 의하면, 서구의 근대는 길 또는 영혼을 잃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남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망각한 채", 부질없고 서글픈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는 삶이 그 역설적인 성과였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낮익은 자취, 기억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힌 병실이나 노인보호시설"에서 문명의 희생자로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 땅에는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인권, 삶의 가치가 무너졌고, 희생, 용서, 신뢰, 약속들이 처절하게 낡고 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격체의 깨어짐도 심각하다. 현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취약한 인간의 기반을 더욱 급속도로 취약하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 언택트 시대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전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환경은 세계보다 덜 유해하지 않다. 기술 환경은 달라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그것은 변화의 연속일 뿐이다.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디지털 기술체계가 더 교묘하게 삶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가치의 근원인 사람을 창조의 원상태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흐릿한 것으로 만드는 힘들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인 사람이다. 이것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술에 맡겨진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의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들을 향하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인간들의 협잡과 모략이 아닌, 공허한 입술과 식언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토성처럼 무너진 신의가 회복되고, 부서진 망루를 다시 세우듯, 하나님 나라 대리자의 숭고함과 위엄이 다시 정립되어 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구원을 욕망하다1, oil on canvas, 53.0x45.5cm, 2020

구원을 욕망하다2, oil on canvas, 53.0x45.5cm, 2020



Ecce homo  
oil on canvas, 53.0 x 45.5cm, 2019



Salvation Desire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x130.3cm, 2015



Salvation Desire, oil on canvas, 193.9x130.3cm, 2015



구원을 욕망하다,  
oil on canvas, 162.2 x 130.3cm, 2015



Salvation Desire,  
acrylic & oil on canvas, 116.7x91.0cm, 2015



Salvation Desire, oil on canvas, 60,6x45.5cm, 2015



Salvation Desire, oil on canvas, 65.1x53.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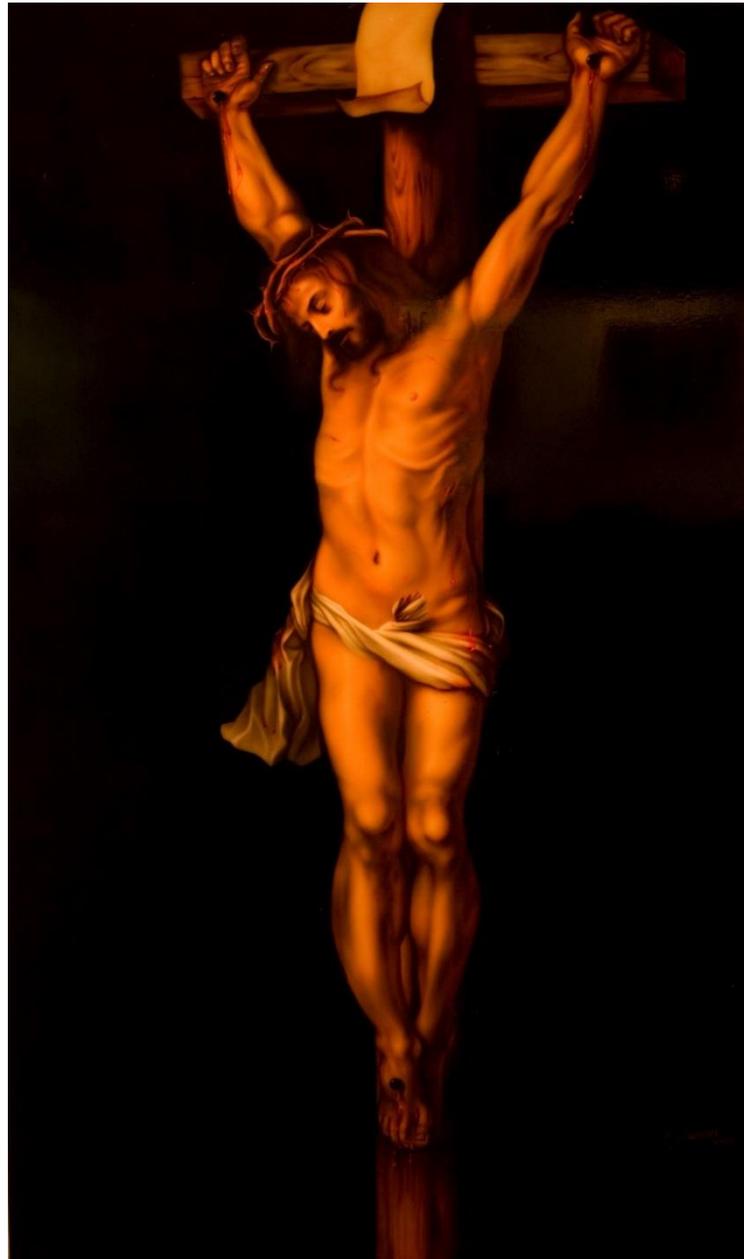
Ecce Homo,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30x130cm, 2014



The source of light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x130.3cm 2014



Ecce Homo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x130.3cm 2013



Crucifixion,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x91.0cm, 2013



Authority to Heaven,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x130.3cm, 2012



이 사람을 보라,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16.7x91.0cm, 2012



Christ Carrying the Cross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16.7x91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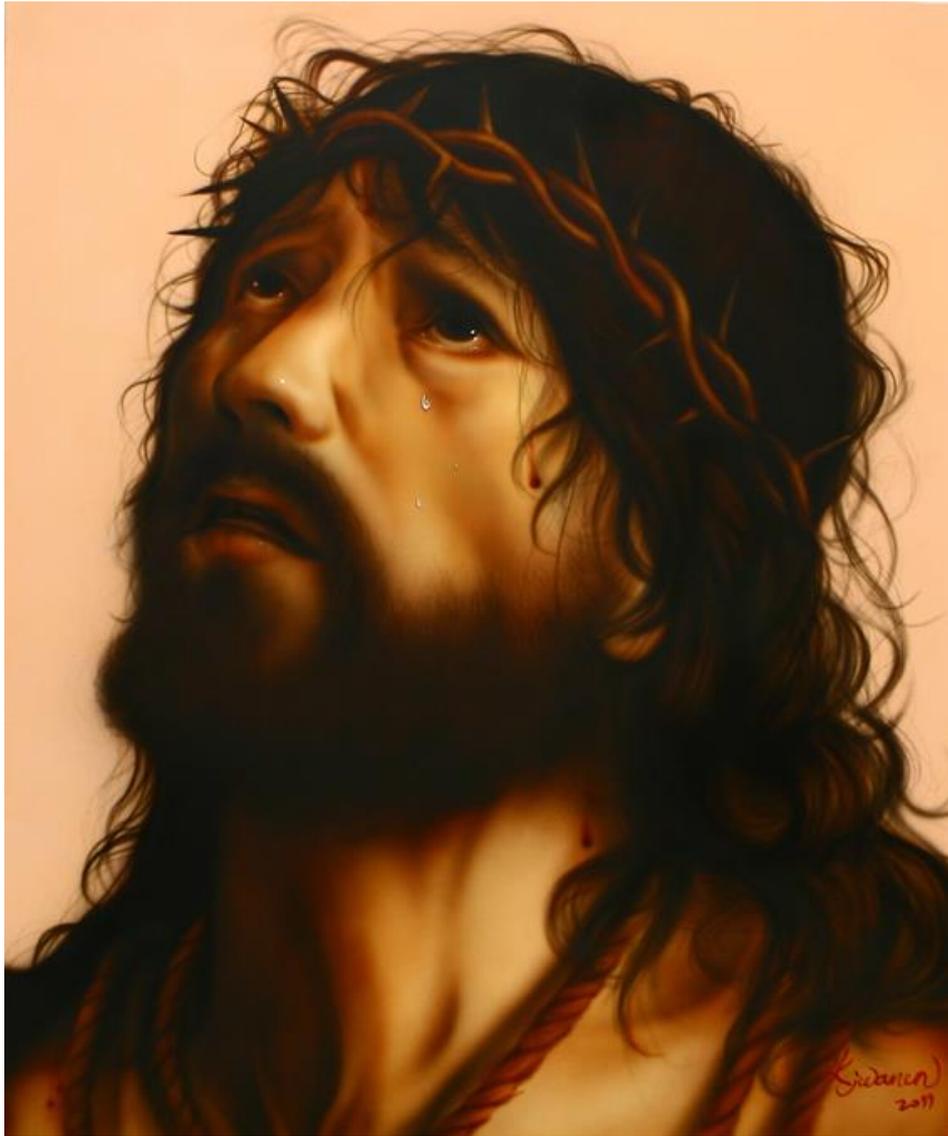
Ecce Homo, acrylic & urethane on aluminum, 100x100cm, 2011



Le Christ portant sa croix, acrylic & urethane on aluminum, 100x100cm, 2011



For Smarfools, acrylic & urethane on aluminum, 100x100cm, 2011



Lamentation, acrylic & urethane on canvas, 72.7x60.6cm, 2011



Lamentation, acrylic & urethane on aluminum, 35x35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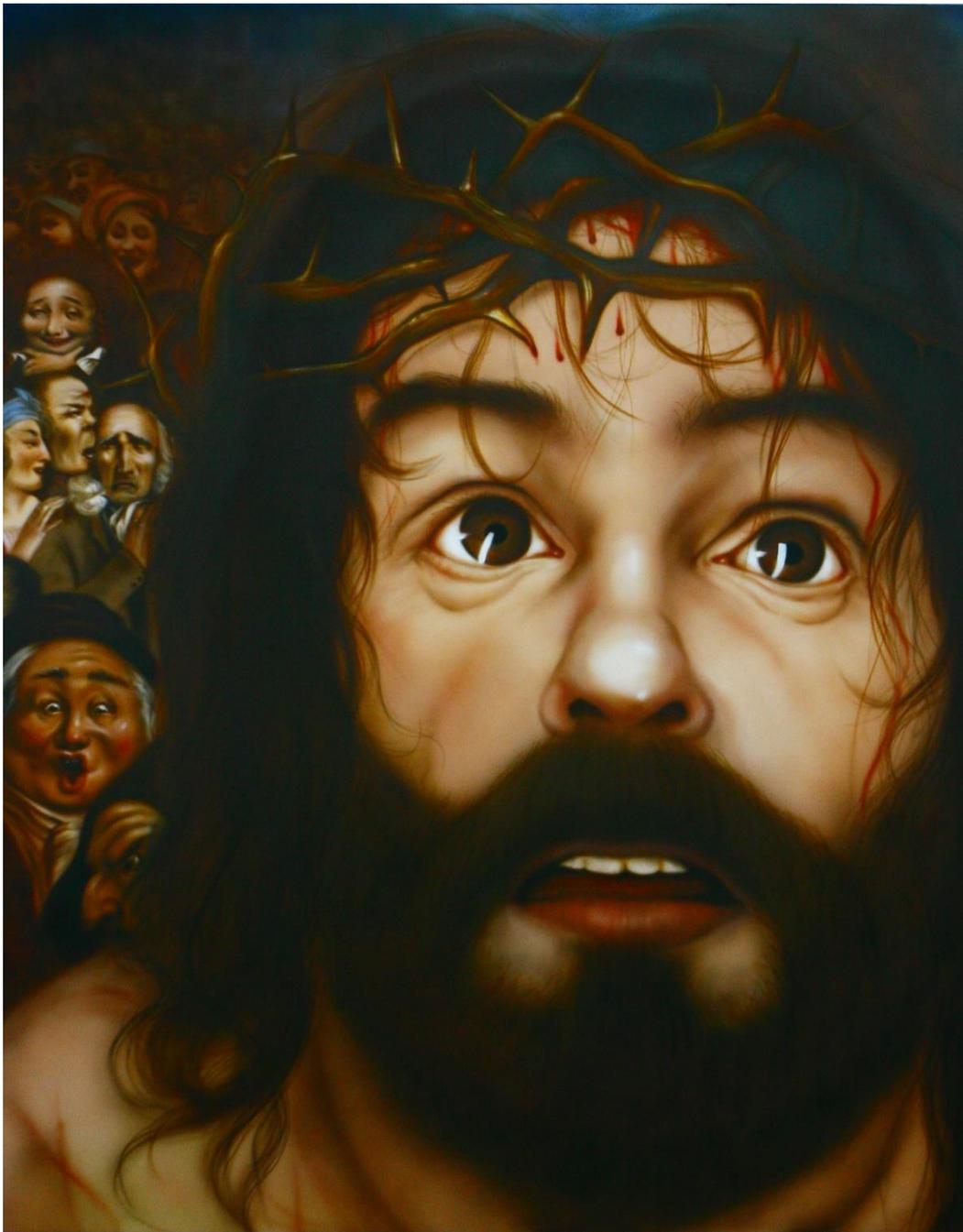
Flagellation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x130.3 cm 2011



Ecce Homo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x130.3cm, 2011



Ecce Homo,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x130cm, 2010



For Smarfools  
acrylic on canvas 116.7x91.0cm 2010



For smarfools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16.7x91.0cm 2010



For Smarfools,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16.7x91.0cm, 2010



For the Smarfool,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30.3x130.3cm, 2009



For the Smarfool,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30.3x130.3cm, 2009



Ecce Homo 130.3 x 130.3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09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acrylic & urethane on canvas, 162.2 x 130.3cm 2009

## 주요전시 : <Jesus Bleibet Meine Freude (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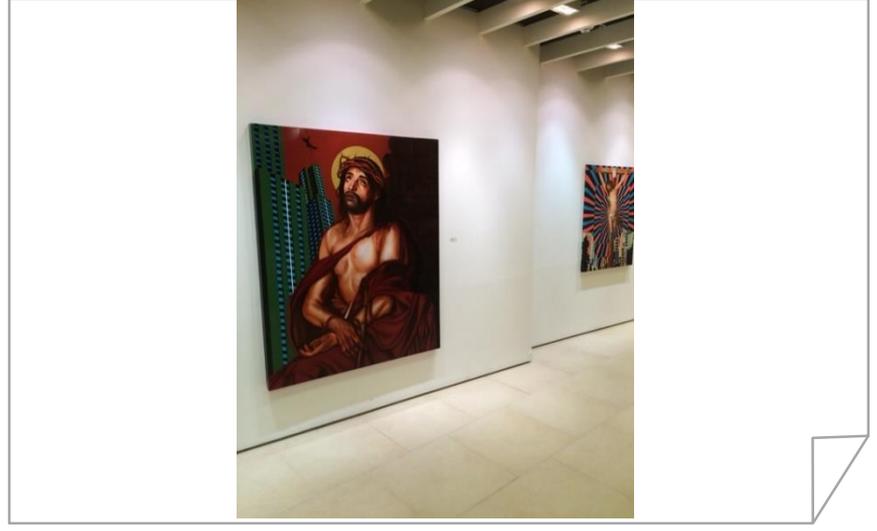
**전시일정**

2021. 05.10(mon)~05.31(mon)

**전시장소**

**예향갤러리(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23)**

# 주요전시 : <'다시 성육신의 자리로'. 2015.8.22-9.11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



# 주요전시 : <메시엠네시아(메시아기억상실증)>

언론보도 스크랩(2013.02.27, 경기일보)

## 인천 아트트리스 '공모작가 3인방' 잇따라 개인전

류설아 기자 | rsa119@kyeonggi.com

승인 2013.02.27

인천의 비영리 갤러리인 '아트트리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가 2013년 공모로 선정한 작가 이예림, 백동열, 강지웅 3인방의 개인전을 지원한다.

전시는 27일부터 3월29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되며, 작가별 열흘간 전시하게 된다.

첫 번째 주자는 이예림으로 오는 3월8일까지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현재를 기록한다고 생각, 작가 혼자만의 여행에서 마주한 **건물**을 선을 부각해 **아크릴**로 캔버스에 옮겼다.

바통을 이어받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전시하는 백동열 작가는 비슷한 계열의 색감과 보색 대비를 준 **충**을 반복적으로 나열해 **화면**이 확장되는 시각적 교란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강지웅 작가는 개인전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현대인**의 기억상실증을 주제로 성화로 익숙한 메시아(MESSIA)를 현대로 끌어올렸다.

한편, 아트트리스의 선정작가 지원 개인전은 오는 5월말까지 이어진다. 문의(032)524-5996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강지웅 Le Christ portant sa croix  
100x100cm acrylic & urethane on AL panel 2011  
(after Lorenzo Lotto)

